

夜間中学の歴史

―大阪の夜間中学を中心―

日本で最初の夜間中学は一九四七年に始まった生野第二中学だと言われています。戦争が終わってまもない時代、貧しさや差別のため昼に学校へ行けない子どもたちのために、夜に学べる場が設けられました。その後、神戸市の駒ヶ林中や東京の足立四中などが作られ、全国にひろがりました。

しかし、日本が豊かになりだし夜間中学生の数も減り始め、学校数も二五校になった一九六六年、行政管理庁は「夜間中学は法律違反だからなるべく早く廃止し、生徒を昼の学校にもどしなさい。」という勧告をだしました。しかし、当時まだ学校に行けなかった人が全国で一二〇万人、大阪で五万人もいると言われている。

このことを知った荒川九中卒業生の高野雅夫さんは、「俺にとって夜中の廃止は死刑宣告と同じことだ。全国を歩いて訴えて

やる。」と決心しました。荒川九中を舞台にした映画「夜間中学生」を作り、全国をまわって「夜間中学廃止反対」と「夜間中学の増設」を訴えました。一九六八年、大阪へ来た高野さんは、たった一人で二〇〇万枚のビラをまいて夜間中学の開設を訴えるところにも、夜間中学を必要とする生き証人を探しました。この呼びかけにこたえて八人の仲間があらわれました。また高野さんに協力する人たちこの努力もあって、ついに一九六九年六月五日、大阪府立天王寺夜間中学が作られ、大阪で一つだけ残っていた岸城夜間中学も正式に大阪府から認められました。

高野さんが大阪を去った後も、運動は夜間中学の生徒や卒業生に受けつがれました。夜間中学の生徒募集と、夜間中学を増やすために「夜間中学を育てる会」が作られたのです。天王寺に続いて一九七〇年には菅南夜間中学（現在の天満夜間中学）が作られました。さらに天王寺の卒業生で「育てる会」の会長だ

つた倉橋健三さんが中心になって堺市に
殿馬場夜間中学が、八木秀夫さんの呼びかけ
によって東大阪市に長栄夜間中学が、また
八尾市に八尾夜間中学が作られました。その
後も、「育てる会」や夜間中学の必要性を感じ
た先生たちなどが中心になって守口三中、
豊中四中などに夜間中学が作られました。貧
しい生徒に就学援助金を出して欲しいとか、
職場から駆けつけてお腹をすかしている人の
ために、給食を出して欲しいという要望も「育
てる会」が作られた当時から出されていまし
た。

やがてこの運動は「育てる会」に代わって、
各校の生徒会が集まって作られた「生徒会
連合会」に引き継がれました。一九九七年の
東生野夜間中学、二〇〇一年の太平寺夜間
中学の開校はこれによるものです。特に、
太平寺の開設は生徒数が増えて「満杯」にな
った長栄夜間中学の生徒を中心とした太平寺
分教室開設から八年間に渡る粘り強い努力が

実^{みの}つたものです。

学校名	開設年
岸城中	1953
天王寺中	1969
天満中(菅南中)	1970
殿馬場中	1972
八尾中	1972
長栄中	1972
文の里中	1973
守口三中	1973
豊中四中	1975
琴城分校	1976
東生野中	1997
太平寺中	2001

このように、夜間^{やかんちゅうがく}中学^{がく}は誰^{だれ}かが作^{つく}って与^{あた}えてくれたものではなく、夜間^{やかんちゅうがく}中学^{がく}を本^{ほん}当^{とう}に必要^{ひつよう}としている人^{ひと}たち自身^{じしん}によって作^{つく}られました。しかし、国^{くに}や教育^{きょういく}委員会^{いんかい}にとって、夜間^{やかんちゅうがく}中学^{がく}は「あつてはいけないもの」であることに変わ^かりません。また、「中^{ちゅう}学^{がく}校^{がっこう}だから」という理^り由^{ゆう}で、夜間^{やかんちゅうがく}の生^{せい}徒^{いと}に合^あわな^い制度^{せいど}を押し^おつけてきたこともありました。夜間^{やかんちゅうがく}中学^{がく}の歴史^{れきし}はそうした動^{うご}きに対^{たい}して、なんとか自分^{じぶん}たちが学^{まな}びや^すい学^{がく}校^{がっこう}にし^ようとした生^{せい}徒^{いと}たちの闘^{たたか}いの歴史^{れきし}でもあります。もし、この力^{ちから}が弱^{よわ}くなれば夜間^{やかんちゅうがく}中学^{がく}はなくなっ^てしま^うか、本^{ほん}当^{とう}に学^{まな}びたい人^{ひと}が学^{まな}ぶことのでき^ない学^{がく}校^{がっこう}になっ^てしま^うでし^よう。つぎの高^{たか}野^のさん^の言^{こと}葉^はは一九六九年^{ねん}、

天王寺夜間中学開校の時に贈られたもので
す。これからも夜間中学の門をくぐる人にと
って、かならず心にとめておかなければなら
ないものでしよう。

高野雅夫さんの入学式でのメッセージ

大阪での俺の仕事は終わった！

七年前二一才で生まれてはじめて夜間中学
に入学し、生まれてはじめて差別のない社会
を知った。

その時の感激は皆さんと同じで涙が止まら
なかったことを今でも忘れられない。

しかし、憲法や教育基本法で「すべての人
たちに義務教育の権利」を保障している事を
知った時、感激が怒りに変わった。自分だけ
が卒業したら良いという考えは、一二〇万人

以上の義務教育を終わっていない仲間たちを
差別したことになる。なぜなら差別されてい
るのは俺たちだけではない——特に大阪には、
未解放部落・在日朝鮮人・釜ヶ崎・沖繩スラ

ムなどがある。もし俺たちがその仲間たちに
何もしなかったら、俺たちはその仲間を差別
したことになるんだ。『おまえは部落や！』
『朝鮮や！』と言っただけが差別ではなく、
そういう現実を知らないことも差別だし、知
って何もしないことこそ大きな差別なの
だ！

大阪での俺の仕事は終わった――
これからは君たち夜間中学生の仕事だ――
大阪の夜間中学の歴史を、いや日本の歴史を
作っていて行ってほしい。君たち自身の心と足と
手で――

日本中に差別に泣く仲間が一人でもいる限
り俺はまたテクテクと歩き続けます。俺たち
にとって文字や言葉は知識じゃない。『生き
るための闘う武器なのだ！』本当の意味で
夜間中学なんか必要としない社会を俺たち
自身の力で創ろうではないか！

一九六九年六月五日

東京荒川九中二部OB 高野雅夫

야간중학교의 역사 —오사카의 야간중학교를 중심으로

渡辺 幸二 (わたなべ こうじ)
와타나베 코지

일본에서 최초의 야간중학교는 1947 년에 시작된 이쿠노 제 2 야간중학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대에 가난과 차별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아이들을 위해 저녁에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베시의 코마가바야시중학교와 도쿄도의 아다치 제 4 중학교 등이 만들어져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사회가 풍요롭게 되면서 야간중학교의 수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학교수가 25 개교가 된 1966 년에 행정관리청이 「야간중학교는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폐지하고 학생들은 주간 학교로 옮기도록 하라」 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전국에 120 만명, 오사카에는 5 만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행정관리청의 권고에 대해 알게 된 아라카와 9 중학교의 졸업생이었던 타카노 마사오씨는 「나에게 있어 야간중학교의 폐지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전국을 돌면서 호소해야(1 ページ)

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아라카와 9 중학교를 무대로 한 영화 「야간중학생」 을 만들어 전국을 돌면서 「야간중학교 폐지반대」 와 「야간중학교 증설」 을 호소했습니다. 1968 년에 오사카에 온 타카노씨는 혼자서 200 만장의 전단지를 뿌리고 야간중학교를 개설할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야간중학교를 필요로 하는 산증인들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부름에 8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타카노씨에 협력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있어 결국 1969 년 6 월 5 일에 오사카시립 텐노지야간중학교가 만들어져 오사카에서 한 곳만 남아있었던 키시키야간중학교도 정식으로 오사카후(大阪府)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타카노씨가 오사카를 떠난 이후에도 운동은 야간중학교의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야간중학교의 학생모집과 야간중학교를 늘리기 위해 「야간중학교를 만드는 모임」 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텐노지를 뒤이어 1970 년에는 칸난야간중학교(현재의 텐마야간중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텐노지야간중학교의 졸업생으로 「야간중학교를 만드는 모임」 의 회장이었던(2 ページ)

쿠라하시 켄조씨가 중심이 되어 토노바야간중학교가, 야기 히데오씨가 중심이 되어 히가시오사카시에 초에야간중학교가, 또 야오시에는 야오야간중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야간중학교를 만드는 모임」 과 야간중학교의 필요성을 느낀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모리구치 3 중학교, 토요나카 4 중학교 등에 야간중학교가 생겼습니

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취학원조금을 내 주었으면 한다든지, 직장에서 학교로 급하게 오느라 굶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급식을 주길 원한다는 요망도 「야간중학교를 만드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이 운동은 「야간중학교를 만드는 모임」을 대신해서 각 학교의 학생회가 모여 만들어진 「학생회연합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회연합회에 의해 1997년의 히가시이쿠노야간중학교, 2001년의 타이헤이지 야간중학교가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타이헤이지야간중학교는 학생수가 늘어 「정원이 차게」된 초에이야간중학교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타이헤이지분교실(分教室)로부터 8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이 (3페이지)

결실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간중학교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야간중학교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교육청에게 있어 야간중학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중학교」라는 이유로, 야간의 학생들에게는 맞지 않는 제도를 강요해 온 적도 있었습니다. 야간중학교의 역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든 자신들이 다니기 쉬운 학교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 힘이 약해진다면 야간중학교는 없어져거나 정말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학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음의 타카노씨의 말은 1969년에(4페이지)

있었던 텐노지야간중학교가 개교했을 때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야간중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에 두었으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타카노 마사오씨가 입학식에서 했던 메시지

오사카에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7년전인 21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간중학교에 입학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별이 없는 사회를 알았다.

그 때의 감격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격은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들만 졸업하면 된다는 생각은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1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 특히 오사카에는 미해방부락·재일한국인·카마가사키·오키나와 슬럼(5페이지)

등이 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된다. 『너는 부락출신이지!』 『재일한국인이니!』라고 말하는 것만이 차별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것도 차별이고 알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차별이다!

오사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났다—

앞으로는 여러분 야간중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다—

오사카의 야간중학교의 역사를, 아니 일본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과 발과 손으로—

일본에 차별때문에 우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다시 전국을 순회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문자와 말은 지식이 아니다. 『살기 위해 투쟁하는 무기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야간중학교 따위가 필요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969년 6월 5일

도쿄 아라카와 9 중학교 2부 졸업생 타카노 마사오 (6 페이지)

번역:김윤정(수도대학도쿄)

翻訳:金侖貞(首都大学東京)